

광산구, 송정역·광산경찰서 등 5·18 사적지 지정 추진한다

시민군·계엄군 대치 '송정역', 여성운동가 구급 '광산서' 역사적 장소 광주 29곳 중 광산구 한곳도 없어...운상원 열사 기념관 건립 막바지

광주 광산구가 5·18민주화운동 역사적 현장의 사적지 지정을 추진하는 등 오월 정신을 전파하는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관내 5·18 관련 장소를 사적지로 지정·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다.

광산구에는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선 광주시민의 항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하지만 4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광산구 곳곳에 있는 5·18 역사현장은 그동안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광주의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만 살펴봐도, 동구 15개소, 서구 6개소, 남구 3개소, 북구 5개소 등 총 29곳으로, 광산구 소재 5·18 사적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광산구의 5·18 역사적 현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민선 8기를 맞아 관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조명하고 알리기 위한

사적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그동안 두 차례 토론회와 포럼을 열어 광산구 5·18 사적지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고, '광산의 5·18'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의 증언을 청취했다.

다수의 전문가와 5·18 당시 시민군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은 "광산구 내 518 관련 공간을 사적지로 지정해 역사적 사건의 교훈, 경험, 가치를 기억·보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역사적·문화적 의의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광산구가 발굴한 5·18 관련 장소 중에서도 광주송정역과 광산경찰서 두 곳이 사적지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광주송정역은 80년 5월 22일 시위군중의 집결지이자 인근 지역에서 광주로 진입하려는 시민군과 계엄군이 대치한 곳으로, 현재는 호남권 교통 요지이자 광주 방문객에게 5·18을 알리고, '다크 투어리즘' 성격의 역사 관광 연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광산경찰서는 5·18 당시 여성 운동가들을 구급했던 장소로, 고문수사와 잔혹 행위가 자행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광산경찰서에 구급대 고초를 겪었던 정현애(사)운상원기념사업회 이사는 "광산경찰서는 5·18항쟁에 참여한 여성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장소"라면서 "사적지 지정은 불의에 맞선 여성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우선 광주송정역, 광산경찰서 두 곳에 대한 사적지 지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관련 자료와 증언 등 수집 정리 작업이 막바지 단계이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광주시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이자 '오월 광주'의 상징인 운상원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할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운상원 기념관, 이하 센터)' 건립도 순항하고 있다.

센터는 운상원 열사 생가 인근에 연면적 591㎡ 지상 2층 규모로 짓고 있다. 진입로 확보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돌파구를 찾으면서 건립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내부는 기획·상설 전시공간을 비롯한 주민을 위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광산구 간부 공직자들은 지난 11일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국립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했다.

한 공유·공동체 공간을 조성 중이며, 늦어도 올해 안에는 개관한다는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오월정신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정의롭게 비추는 등대"라면서 "상생

과 혁신으로 오월정신이 우리의 삶과 문화를 밝히는 민주, 인권, 평화의 횃불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영화로 만나는 5·18, 광산구 온라인 상영회

박기복 감독 '낙화잔향'·'고인돌', 18~27일 유튜브 '문화광산ON'

광주 광산구는 "43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을 그린 박기복 감독의 영화 '낙화잔향(落花殘香)'-꽃은 저도 향기는 남는다" 온라인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낙화잔향(落花殘香)'(사진)은 '입을 위한 행진곡'에 이어 두 번째로 80년 5월 광주 이야기를 다룬 박기복 감독의 작품이다.

80년 5월 주인공(연민지)이 광주에 뮤지컬 배우 오디션 참가를 위해 왔다가 광주학살을 목격하며 벌어진 일을 그리고 있다. 광주가 아닌,

타지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80년 광주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

18일부터 27일까지 광산구 유튜브 채널 '문화광산ON'에 공개돼 시민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광산구 누리집의 '새소식'란에 게시된 링크에 접속해 관람할 수도 있다.

신작 '고인돌(2023년 작)'도 동시 상영된다. '고인돌'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 논리인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슈퍼 V-day' 연합활동

광산구자원봉사센터는 최근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와 함께 평동지역 농가 4곳에서 '농촌일손돕기' 모두의 자원봉사, 슈퍼 V-day' 연합활동을 가졌다. (사진)

광산구자원봉사센터의 연합활동은 농번기를 맞아 부족한 일손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중앙회 광주본부가 연계한 이번 봉사활동은 80여명이 참여해 평동지역 4개마을에서 하우스 철거, 종묘장 녹화작업, 하우스 내 작물제거, 장미결순따기 등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전 세계 55만 고려인동포 광산에 모인다

19~20일 '제1회 세계 고려인 대회'...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 출범

광주 광산구는 "19~20일 전 세계 55만 고려인의 국제적 연대와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제1회 세계 고려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산구와 호남대,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고려인 국제교류행사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 고려인협회와 카자흐스탄 '고려일보' 등 국내외 400여 명의 고려인 및 관련 단체·기관 관계자가 광산구를 찾을 예정이다.

광산구 거주 고려인 동포는 안산, 인천 등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려인 집성촌인 고려인마을이 형성돼 있으며,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4700여 명, 고려인마을 추산으로는 7000여명이 월곡동에 정착해 살고 있다.

제1회 세계 고려인 대회는 고려인동포 정착 지원, 선주민과의 소통, 역사문화 공간 조성에 이르기까지 광산구가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과 사업, 고려인마을과의 협력 과정을 되돌아보며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K-미래대회'를 부제로 고려인마을과 호남대 등에서 민관학이 공동으로 마련한 다양한 행사 등 연대 화합의 장도 펼쳐진다.

행사 첫날인 19일 호남대에서는 'K는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리며, 호남대 문화체육관에서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 출범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총회 첫 의장은 신조야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대표가 맡는다.

다음 날인 20일에는 흥남도 장군 홍상이 있는 월곡다모어린이공원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식과 평화선언 행사가 개최된다.

한편 21일에는 키르기스스탄 '만남' 공연단이 중외공원에서 광주시민의 날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제1회 세계 고려인 대회는 고려인 동포를 적극 포용한 광산공동체의 상 연대가 세계 고려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광산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세계 고려인 연대의 거점으로 부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